

문화재 풍류산책 하고 축제도 즐기고

광주 동구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강진 '조선 500년 병영성' 등 문화재활용 광주·전남 50건 선정

광주 동구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담양 '생태도시 담양-문화재와 소통하다', 곡성 '축제한마당-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 등 광주·전남에서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50여 건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활용할 지역 문화재 405건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생생문화재' 165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07선, '문화재 야행' 45선,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43선, '고택·종갓집 활용' 45선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가치 아래 잠자고 있는 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도록 견인하자는 취지다.

광주에서는 동구 '생생한 그 날로 고고 GO! GO!'를 비롯해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서구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북구 '김덕령 마을살이', 광산구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등이 채택됐다.

전남은 '명물 육단이! 잔치집으로 마실가다!',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목포)',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순천)', '기언(記言)! 말씨앗으로 가치를 꽃피우다'·'조선의 도시 나주로 가지-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 들고(나주)', '광양 생생 김 여행'·'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시대별 프로젝트(광양)', '생태도시 담양-문화재와 소통하다'·'역사의 빛, 의향문화재를 만나다(담양)', '문화재 가꾸고 누리다, 보성여관(보성)', '조선 500년 병영성, 변영을 쌓다(강진)', '문화재 손 잡고 미래로-새명(해남)', '하늘 감동 '염동설화 청개구리'(장성)', '완도 가리포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에 소재한 월봉서원에서 진행된 선비체험 장면. <광주일보 자료>

500년, 조선수군과 노닐다(완도), '삼시세끼 농악마실(진도)', '천사의 선물 천일염, 생생소금밭 체험' 등이 선정됐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는 월봉서원 '2022. 다시 고향을 만나다', 무양서원 '무양 In the city'가 뽑혔다. 전남은 '창평향교 은행나무 선비학교(담양)', '축제 한마당-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곡성)', 'Happy 구례향교(구례)', '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지락(鄕校之樂)(화순)', '품생품사 강진학교!(강진)', '옛것에서 오늘을 배우다(영암)',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교(무안)', '청림 절의 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장성)' 등이 포함됐다.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재야행 사업은 전남에서 모두 3건이 선정됐다. '목포 문화재 야행', '여수 문화재 야행-1898년, 여수 총쇄록에 담긴 명승고적', '순천문화재야행-순천인물열전' 등이 뽑혔다.

전통산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 문화자원 등을 토대로 산사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 공연, 답사 등의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광주는 원효사의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더 힐링 스토리Ⅲ'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여수 흥곡사 '흥곡사찰 흥곡사, 여수 흥(興)하다', 순천 송곡사 '조계산 천년 산문을 열다', 나주 불회사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스토리 여행-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 구례 화엄사 '화엄세상을 만나다', 보성 대원사 '어서 와! 저승은 처음이지?', 화순 운주사 '천출천담, 별을 찾아서' 등이 뽑혔다.

지역의 생태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은 나주 남파고택 '나주문화집합소-남파고택', 곡성 제호정 고택 '전유성과 함께 곡성 제호정 고택에서 풍류', 구례 운조루 '운조루 문화뒤주 프로젝트', 보성 광주이씨 이진래 고택 '보성의 소리, 멋, 맛에 빠지다', 강진 영광생가 '더 샵 252 영광생가', 영광 매간당고택 '주역으로 본 매간당고택의 효 비밀'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광주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와 순천 'VR로 체험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선정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부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온라인과 현장 연계해 진행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아트 세계로 변신한 광주공원 일대

광주문화재단, 10월 1~3일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주년 빛·소리 전시 프로젝트

광주공원 일대가 빛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미디어아트 세계로 변신한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년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오후 7시30분~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광주공원 일대에 빛과 소리가 잘 어울리는 미디어아트의 매력적인 세계를 연출한다.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

전시 주제는 '회복'이며 인간과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적 회복'을 꿈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기간에는 빛과 소리로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공원 일대를 밝힌다.

문화재단은 지난 8개월 동안 레지던스 입주 작가 외에도 창의력에 참여한 미디어아트 창작자, 예비 창작자, 시민 '시.작.팀' 등이 함께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본 행사인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주년 프로젝트,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신규콘텐츠 개발 1차 쇼케이스, 미디어아트 창의력 축제 프로젝트 1차 쇼케이스 3개 분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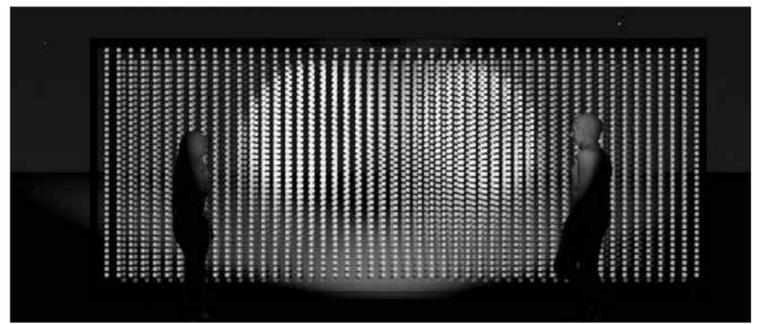
개막식은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며 문화재단 TV에서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부대행사로 도슨트 투어와 버스킹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단 부대행사와 도슨트 투어는 코로나 19상황을 반영해 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기념 프로젝트에는 ▲10기 레지던스 입주작가 강수지, 김은경, 이뿌리, 이태현 ▲미디어아트 신규콘텐츠개발 김용원, 엘퍼스(LPERS-조민선, 소은영, 최유환, 박주홍, 장영석), 이현민, 이성웅 ▲미디어아트 창의력 전문-예비창작 프로젝트 이조흠, 김성주, 리은, 류필립, 설박, 윤준영, 조선대학교 예비 창작자 학생 9명 ▲시민창제작 프로젝트 최용재, 김재철, 김수연, 강세빈 등 일반시민과 전남대학교 시민참여자 김은호, 이라연, 박유미, 여예강 등 총 35명이 참여해 13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문화재단은 오는 10월 7일 '회복 가능한 도시: 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로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기후, 날씨,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이프랜드 메타버스 회의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 등록은 10월 15일까지다. 문의 062-670-7456, 7453, 745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태현 작 '8 & Credit'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공공미술 다양한 이야기 풀어내다

25일부터 토크쇼 '톡톡톡'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토크쇼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미술생태연구소 및 인문학교육연구소와 함께 '공공미술의 현장'을 주제로 월간 아트 토크쇼 '톡톡톡'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중강연과 전문가 집단의인 '라운드 테이블' 방식을 통해 호남권의 공공미술 담론을 형성하고 발전적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기획이다.

관련 분야의 기획자, 문화활동가, 작가, 행정가, 이론가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대중강연: 공공미술, 이론과 실제'와 '라운드테이블: 공공미



술탁상공론'으로 나눠 운영된다.

양진호 인문학교육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섭(독립큐레이터), 윤현욱(aec 비비트 펌대표), 백종욱(미술생태연구소장·사진), 임재일(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소장), 윤종필(커뮤니티 아티스트) 등 5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다. 신청은 구글폼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문의 070-4185-863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의 문턱서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

남도국악원 25일 사물놀이 공연

신명나는 풍물 가락과 함께 가을의 신선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5시 국립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사물놀이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사진)이 선보이는 이날 공연은 '문긋'으로 문을 연다. 이어 부산시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영남비루 부포놀이',

호남우도농악 설장구의 맥을 잇고 있는 전남무형문화재 제17호 '김동연류 설장구', 완도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를 무대화한 '서한우 버구춤'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호남 고깔소고춤과 웃다리 소고놀이, 영남 소고놀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고놀이를 모아 재구성한 '삼도 소고놀이' 등 어느 때 보다 농악의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으로 선착순 190명을 모집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